

□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증대

- 세계 경제의 성장축 이동과 영향

1. 세계 경제의 성장축 이동과 원인

(1) 선진 경제의 성장세 둔화 속, 후발 개도국의 고성장 지속

- 2000년 이후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는 반면, 중국 등 신흥 개도국들의 성장세는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냄
- (선진 경제의 저성장) 21세기에 들어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가 90년대에 비해 크게 둔화됨
  - 1991~2000년 G7국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5%에 달하였으나, 2001~2004년에는 1.9%로 하락함
  - G7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수년째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6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G7국가의 GDP갭(gap)률<sup>1)</sup> : +2.4% ('00) → -1.4% ('02) → -2.0% ('03) → -1.2% ('04) → -0.9% ('06E)
  - 특히 90년대 한국 수출 대상 지역중 1위(연평균 수출 비중 20.4%)를 기록하던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3.3%에서 2.5%로 하락함
    -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쳐, 올해 1~8월중 대미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2%를 기록함
    - 같은 기간 대미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5%로 중국의 21.8%는 물론 EU의 15.2%보다 낮은 상황임

1) GDP 갭률이란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수치가 陽의 값이면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를 나타낸 것임.  $GDP\text{ 갭률} = \left( \frac{\text{실제}GDP}{\text{잠재}GDP} - 1 \right) \times 100$ .

< 세계 및 G7국가의 경제성장을 추이 >

	세계	G7
1991~2000	3.3%	2.5%
2001~2004	3.7%	1.9%

자료 : IMF Database.  
 주 : 기간중 연평균 자료임.

○ (신흥 개도국들의 고성장 지속) 반면 중국 등 이머징 마켓 (Emerging Market) 과 개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4.1%에서 5.6%로 증가함

- 1990년대 10.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던 중국은 2000년대에도 WTO 가입에 따르는 수출 증대 효과와 국내 자체 개발 수요에 의해 8.7%의 고성장을 유지함

· 수출 증대 효과 : 2005년 상반기 수출이 32.7%, 수입이 14% 증가하여 총 교역액 6,453억 달러, 39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무역수지는 이미 2004년 무역수지 흑자액 321억 달러를 초과)

· 국내 수요 : 동부 연안 지역의 빠른 성장,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 북경올림픽을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과 같은 공공 수요로, 같은 기간 고정자산투자와 국내 소비도 각각 25.4%, 13.2% 증가함

- 또한 인도, 러시아, CIS 국가들의 경우에도 90년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2001년 이후 높은 성장률을 지속중임

< 주요 이머징/개도국 경제성장률 추이 >

		이머징 및 개도국			
		중국	인도	러시아	CIS(러시아 제외)
1991~2000	4.1	10.1%	5.6%	-3.5%	-3.8%
2001~2004	5.6	8.7%	6.0%	6.1%	8.4%

자료: IMF.  
 주: 러시아 및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는 1992~2000년 기준임.

(2) 성장축 이동의 원인

- 21세기 이후 선·후진국간의 성장 격차가 좁혀지는 원인으로는 선진국들의 성장 동력 확보 실패, 후발 주자의 이점, 세계 경제 환경 변화 등을 들 수 있음
- (선진국들의 성장 동력 확보 실패) 2000년을 기점으로 90년대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IT 산업에 세계적인 과잉공급 현상이 발생하여 신경제 시대가 마감된 반면, 이를 대체할 신성장 산업의 등장이 지연됨
  - IT 산업의 중심이 시간과 자본이 상대적으로 덜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의 시장 진입으로 IT 산업 전반의 라이프 사이클이 단축됨
  - 이에 따라 90년대를 거치면서 IT 산업에 대한 의존적 구조가 형성되었던 선진국들의 경우, 경제 전반의 투자가 침체되면서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됨
    - OECD 국가들의 주요 부문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0년 8.5%에서 2001년 -0.7%로 하락
    - 참고로 한국도 같은 기간 33.6%에서 -9.0%로 급락함

< OECD 국가들의 주요 부문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

(단위: %)

	1992	1995	1998	2000	2001	2002
설비투자 증가율	-2.7%	9.5%	8.2%	8.5%	-0.7%	-2.3%

자료 : OECD.

주 : 1) OECD 회원국 중 자료가 존재하는 21개국의 평균치임.

2) 설비투자는 금속 기계 (Metal products and machinery) 및 운송 장비 (Transport equipment) 기준임.

- (후발 주자의 이점) 후진국들의 경우 경제 개발 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자체 개발 수요가 크다는 장점이 고성장 유지의 가장 큰 원인임
  - 후발 개도국들의 경우 선진국과 한국과 같은 선발 개도국들이 경험했던 경제 발전 과정상의 부작용이나 정책적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
  - 또한 후발 개도국들은 초기 개발 수요가 막대하여, 세계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이상에는 고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한국의 70년대와 현재 중국을 비교할 경우,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선진국들의 경제 상황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중국과 같은 대규모 개방 경제의 경우 자체 개발 수요에 의한 고성장 유지가 가능함
    - 특히 중국, 러시아, CIS국가, 동유럽 등 舊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 90년대 초반 냉전 체제의 붕괴 이후 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면서, 빠른 성장세를 지속함
- (세계화) 세계화의 진전으로 후진국들의 자체 개발 수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본 확보가 훨씬 수월해짐
  - 세계화란 상품, 자본, 노동의 생산 요소가 국가간 장벽에 좌우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IT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물리적 성격이 강한 상품과 노동에 비해 자본의 이동이 용이해짐
  -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크게 수출과 자체 개발 수요를 들 수 있는데, 자체 개발 수요가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FDI를 통한 국제 자본의 유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임
    -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FDI 실행액 기준) 는 2000년 407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FDI 유입국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2004년의 경우 606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2. 성장축 이동 과정상의 부작용

○ (국제 금융 시장 불안) 선진 경제들의 성장세 둔화로 많은 국제 자본이 고수익을 찾아 후발 개도국이나 이머징 마켓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국제 금융 지표들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

- 후발 개도국들의 고성장 (高 수익률) 은 국제 자본의 유입을 유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약 달러 기조와 이머징 마켓의 주가 급등 현상이 나타남
  - 美 달러화 약세 : 엔론 사태, 쌍둥이 적자, 테러 위협 등으로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감으로 약 달러 기조가 여전히 유효
  - 이머징 마켓 주가 급등 : 최근 2년간 인도네시아, 러시아, 브라질 등 이머징 마켓의 주가는 100%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었으며, 한국도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1,000포인트를 상회중임
- 그러나 최근 급격한 자본 이동에 대한 시장의 경계 심리와, 자본 이탈 속도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선진국들의 금융 정책 (美 금리 인상) 으로 국제 달러 유동성이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나갈 압력이 고조되고 있음
  - 최근에 들어 美 FRB가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국제 채권 시장에서 금리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달러화가 주요 통화들에 대해 강세로 반전된 상황임

8월말 달러화 가치는 전년말 대비 엔화에 대해 7.8% (엔/달러 : 102.63엔 → 110.60엔), 유로화에 대해 9.8% 상승함 (달러/유로 : 1.3554달러 → 1.2346달러)

- 한편 일부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주가와 채권 및 통화 가치 급락 현상이 나타남

최근 인도네시아 주가가 8월 한 달 간 17% 가량 하락하고 환율과 금리는 각각 11%, 2.32%p 급등함

- (세계 경제에 단기 부동 자금 증대) 기업 투자와 같은 생산적인 부문에서의 자금 수요가 위축되고, 이머징 마켓이나 후발 개도국들의 자본 수요도 유한할 수밖에 없어, 많은 국제 자본들이 수익을 내기 위하여 상품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투기에 참여하고 있음
  -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 : 투기 자본의 일부가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되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을 제공함
  - 2005년 8월 31일 현재 Dubai 유가는 배럴당 58.8달러로 전년말의 33.1달러보다 약 77.6% 상승
    - 같은 기간 WTI 先物 가격은 배럴당 43.5달러에서 68.9달러로 58.4%상승함
    - Brent 先物 가격은 40.6달러에서 67.0달러로 65.0% 상승함
  - 국제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동향을 나타내는 Reuter 상품 지수와 CRB (Commodity Research Bureau) 선물 지수는 2005년 8월 26일 현재 2004년말에 비해 각각 5.1% 및 11.7% 상승

< 국제 원자재 가격 지수 동향 >

	기준 시점	2001	2002	2003	2004	2005 8.26
로이터지수	1931.9.18. =100	1,178.2	1,368.8	1,664.5	1,570.8	1,650.5
CRB지수	1967=100	190.6	234.5	255.3	283.9	317.1

자료 : 로이터, 블룸버그.  
주 : 기말 기준.

- 한편 미국, 유럽은 물론 중국 동부 연안 지역 등 세계적인 자산 버블 형성을 주도하고 있음
  - 미국의 2/4분기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건설 투자

가 활기를 띠고 있으며, 미착공 주택 물량(6월 말 기준: 177,000가구)이 많아 하반기에도 주택 건설 경기의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미국의 주택 건설 투자 증가율 추이 >

(단위: %)

	2004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1/4	2/4
주택건설	10.3	18.5	2.1	9.5	9.8
경제성장률	4.2	4.7	3.7	3.8	3.4

- (선진 경제 건전성 훼손)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국 정부들은 단기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 비중을 높일 유인이 존재하며, 이 경우 경제의 건전성이 훼손되어 성장잠재력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우려가 존재함
- 내수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진국 정부는 확장적 거시 경제 기조를 유지하려 할 유인이 존재
  - 최근 미국 경제가 투자가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저금리 기조에 따르는 자산 가격 상승과 조세감면책 등 경기 부양책에 힘입은 바가 큼
  - 그러나 투자 부진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취약한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소비의 성장 견인력은 그 한계에 직면하여 결국에는 버블 붕괴와 이에 따르는 소비자들의 파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함
- 또한 미국, 일본, EU 등의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재정 지출 확대와 조세 수입 감소에 따르는 재정수지 악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美 재정수지 적자는 2004년 기준으로 4,007억 달러로 GDP의 3.4%에 달함

### 3. 시사점과 대응 방안

○ (시사점) 세계 경제의 성장축이 선진국에서 후발 개도국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우리나라의 선진국들에 대한 수출 부진, 정부의 외환 및 통화 정책에 대한 제약, 국내 물가 상승 및 무역수지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됨

- 여전히 선진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최근과 같은 세계 경제 성장축의 이동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둔화에 따르는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후발 개도국들의 빠른 성장은 이들 국가의 수출 확대 전략과 맞물리게 될 것이고, 제한적인 세계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성장축 변화에 따르는 대규모 국제 자본의 이동으로 원/달러 환율, 국내 주가 및 금리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어, 정부의 외환 시장 및 통화 정책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짐

- 한편 국제 투기 자금이 부추키는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단기간 내 해소되지 못할 경우 국내 물가 상승과 무역수지 악화에 따르는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 대응 방안

- 적극적인 수출 시장 개척 : 선진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탈피하여 BRICs, 동유럽, 구CIS 지역 등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대상 지역에 대한 경제 및 시장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수출 기업에 제공해야 할 것임

· 한편 기업은 특정 지역에 대한 수출 집중을 탈피하고 수출 지역을 다변화



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수출 대상 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함

- 수출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 : 세계 수출 시장에서 후발 개도국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저가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 위주의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 및 품질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R&D 투자 비중을 제고하고, 産學研이 연계되어 새로운 기술이 상업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함
-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 국제 금융 시장,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로부터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유관 기관간의 협조를 통해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외환 시장에서의 국제 자본의 흐름을 주시하여, 급격한 환율 변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시장 개입을 통해 안정적인 환율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임
  - 또한 기업도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先物 등 파생상품의 활용으로 적절한 위기 대응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
- 국내 물가 상승 압력 완화 : 최근 비록 국내 물가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수입물가의 시차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들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 유류세 인하,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함

주 원 연구위원 (3669-4030, juwon@hri.co.kr)